



Makepeace(1981)가 대학생들의 구애기 폭력(courtship violence)을 연구하면서부터 데이트 단계에서 폭력에 대한 개념이 전문적인 용어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데이트폭력에 대해 연구하였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범위를 과거에는 좁은 의미로, 데이트 상황에서 데이트 파트너에게 고통을 주거나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직접적 폭력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였다(김용미, 1996; 서경현, 2009; Cate et al., 1982; Makepeace, 1981). 하지만 최근에는 넓은 의미로, 큰소리를 내거나 욕설, 부정적인 표정, 물건을 던지는 행위, 성행위 등 심리적·정서적·성적 가해 행위도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Lloyd et al., 1989; Straus, 2004)를 토대로 이 모두를 데이트폭력으로 포함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폭력에 대한 범위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여성의전화(2018)에서는 데이트폭력이 일어나는 관계를 연인관계보다 포괄적인 데이트 관계라고 정의하였다. 데이트 관계란 좁은 범위에서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 넓은 범위에서는 소개팅, 맞선 등을 통해 앞으로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함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 또한 포함한다. 최근 데이트폭력은 연인관계에서의 폭력뿐만 아니라 호감을 가지고 있는 관계와 이별을 한 상태에서의 폭력까지 포함하는 추세이다(한국여성의전화, 2018). 데이트폭력성을 분류하는 유형은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대부분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으로 나누어진다(Straus, 2004).

이렇듯 데이트폭력 개념이 확대된 배경에는 국내에서 데이트폭력 발생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인다는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경찰청(2020) 자료에 의하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가 2017년에 14,136건, 2018년에 18,671건, 2019년에 19,94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청(2020)의 7월~8월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결과에 의하면, 가해자의 연령은 20대가 35.5%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24.5%로 두 번째로 높았다. 데이트폭력의 가해자 중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현황과 더불어, 이성교제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는 대학생들에게 데이트폭력의 경험과 노출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김도연 외, 2017; 김승분, 2019; 최혜자, 2017; Straus, 2004). 또한, 최근 데이트폭력에 대한 연구 동향은 피해와 가해로 나누어 연구되고 있다. 데이트폭력의 피해와 가해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안귀여루, 2006). 유재원(2019)의 연구에 의하면 데이트폭력의 초점을 피해자 관점에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폭력의 가해 요인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 위험성이 높은 대학생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정오영, 2021).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은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예측할 수 있는 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정오영, 2021). 즉,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치료 개입을 하기 위해 연애경험이 많아지는 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의 가해에 해당하는 데이트폭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개입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데이트폭력성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변인 중 하나이다(손연우, 2018; 유선영, 2000). 가정폭력이란,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한다(Straus, 1990). 통계청(2018)에 따르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상담 건수가 2015년에 159,081건, 2016년에 164,937건, 2017년에 180,326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심각해지는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의 간접적 노출 및 잠재적 데이트폭력성의 증가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선행연구에서도 간접적인 폭력 경험이 데이트폭력의 가해와 피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용미, 김현옥, 2001; 김재엽 외, 2007; 장희숙, 2002).

데이트폭력 가해를 설명하는 이론 중 자주 언급되는 사회학습이론에서는 폭력 같은 공격적 행동은 모델링을 통해 학습된다고 주장한다(Bandura, 1977). 성장기 때 가정폭력에 노출되었을 경우 공격성이 증가하여, 성인이 된 후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폭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트폭력도 높은 관련성을 가진다(김득성, 김예정, 1993; 손연우, 2018).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다시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김유정, 서경현, 2009).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데이트폭력성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규명하는 것은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최근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이 관련 변인으로 제기되고 있다(신

지연, 최수미, 2017; 양승애, 서경현, 2015; 정이랑, 2013; 최혜자, 2017). 거부민감성이란,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거부를 늘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역동적인 인지-정서적 과정을 의미한다(Feldman & Downey, 1994).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회피하거나 침묵할 것이라는 추측과 달리, 연인의 거부에 대해 공격적인 대처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승애, 서경현, 2015; 정지윤, 2019; Twenge et al., 2001).

데이트폭력에 대한 이론적 모델 중 Riggs와 O'leary(1989)가 제안한 모델은 공격적 행동의 예측 변인을 심리사회적 변인과 상황적 변인으로 나누었다. 심리사회적 변인은 '어떤 사람이 데이트폭력 가해를 하는지 설명하고, 상황적 변인은 '어떤 상황'에서 데이트폭력 가해를 하는지 설명한다. 각성의 정도와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성은 심리사회적 변인에 해당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각성이나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성의 개념을 실제적인 공격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사용하였다(Bandura, 1973; Berkowitz, 1965; Feshbach, 1970). Riggs와 O'leary(1989)의 모델에 따르면, 각성의 정도는 공격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고, 데이트폭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Cate et al.(1982)은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분노와 혼돈에 대한 반응이라 하였고, 장희숙, 조현각(2001)의 연구에서는 질투심과 분노가 데이트폭력과 관련있다고 하였다. 즉, 각성이 높거나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성이 높은 것과 데이트폭력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안귀여루, 2006). 거부가 예상될 때 거부에 대한 분노, 적대감, 불안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거부민감성의

핵심 특성이며(Downey & Feldman, 1996), 거부민감성 또한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실제로 거부민감성과 데이트폭력 간의 정적 상관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되었다(양승애, 서경현, 2015; Downey et al., 2000). 선행연구에 따르면, 거부민감성의 높은 수준은 이별통보와 같은 거부상황이 예기분노로 작동하고, 이는 데이트폭력성을 촉발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정지윤, 2019; 박명진, 양난미, 2017). 거부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수준의 사람은 데이트 관계에서 이별통보, 거절, 회피와 같이 요구가 거부될 때 보복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김승분, 2019; 조은수, 2015; Ayduk et al., 2008; Downey et al., 2000; Marcus & Swett, 2003). 특히 연인관계에서 더 많은 적대감과 공격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표출하였다고 보고되었다(이경숙, 2019; 정이랑, 2013; Leary et al., 2006).

거부민감성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및 이를 토대로 형성된 애착 관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유고은, 2011; Erozkhan, 2009).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는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맺기 어려우며, 어린 시절에 거부경험을 자기표상에서 타인표상으로 전환되는 내적 작동모델로 인해 대학생 시기의 친밀한 관계에서 거부에 대한 불안을 상승시켜 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김승분, 2019; 정지윤, 2019; 최혜자, 2017; Bowlby, 1973; Collins & Read, 1990; Downey et al., 2000; Feeney & Noller, 1990; Shorey et al., 2008). 즉, 대학생 시기의 데이트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은 가정폭력 노출경험 및 데이트폭력성과 모두 유의미하게 관련된 변인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Sugarman과 Hotaling(1989)의 연구에서는 데

이트폭력의 위험요인을 크게 5가지로, 정신내적 요인, 가족 요인, 대인관계 요인, 스트레스 요인,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나누었다. 이 중, 정신내적 요인에 성 역할 태도가 포함된다. 또한, Lloyd et al.(1989)의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위험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관계적 요인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누었다. 이 중, 개인적 요인에도 성 역할 태도가 포함된다. 선행 연구를 통해 성에 대한 태도가 데이트폭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최근 데이트폭력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로 Johnson과 Leone(2005)의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은 비대칭 권력구조에 초점을 두는데, 이는 남성 우월주의와 가부장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닌 관계에서 주도권이나 권력 혹은 지위의 비대칭이 폭력의 시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서경현 외, 2010).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에 따른 변인인 젠더감수성(gender sensitivity)은 최근에 등장한 개념으로, 젠더의식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기초가 되는 정서적 태도 및 가치와 관련이 있다(안상수 외, 2009; 정해숙 외, 2004; Miers, 2002). Gender Sensitivity를 젠더감수성 대신에 '성인지성'과 '성인지력'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단어에 있어 차이점은 '젠더'가 '성'으로 번역되면서 젠더 개념이 가지는 의미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진영(2011)의 연구에 의하면, 젠더감수성의 용어는 젠더를 성차별 뿐만 아니라 젠더 범주에 대한 고정된 인식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다. 또한 젠더감수성은 여성에 대한 '우선지원'이나 '배려'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성과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모든 '차별'의 문제를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지이자 문화적 감수성이

라 할 수 있다(김영옥 외, 2005). 이와 관련하여 남성이 우세하고 주도적이며 여성은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 관한 신념이 데이트폭력성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으며(Lichter & McCloskey, 2004), 심각한 데이트폭력 피해를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부장적인 문화와 비대칭적인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서경현, 2004).

선행연구에 따르면, 젠더감수성은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고(이화숙, 2016), 부모 간 폭력 노출경험과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간의 관계에서도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권오정, 2019). 특히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성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점차 개방되기 때문에, 데이트폭력의 문제에서 젠더감수성을 확장함으로써 폭력 가해 가능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이화숙, 2016). 더불어, 한국 사회에서는 가부장적인 요소 혹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잔존해 있기 때문에(김경신 외, 1999),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을 근거로 가정폭력 노출 경험과 데이트폭력성 간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의 중재로 인한 폭력성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성의 경험과 노출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대학생들 중심으로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데이트폭력의 가해 행동에 해당하는 데이트폭력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와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여, 상담학적인 측면과 젠더학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데이트폭력의 예방

차원에서 개입이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고자 한다.

## 방 법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 대전, 경북, 대구, 울산에 소재한 9개의 대학교를 대상으로 대학생 400 명에게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자료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10개의 자료를 제외한 390개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주요 특성으로, 성별 분포는 남성이 165명(42.3%), 여성이 225명(57.7%)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24.96세(SD=4.52)로 나타났다.

### 연구도구

#### 데이트폭력성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 Hamby, Boney-McCoy 및 Sugarman(1996)이 개발한 The Revised Conflict Tactic Scales(CTS2)를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현실에 맞게 김정란(1999)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심리적 폭력 척도, 신체적 폭력 척도, 성적 폭력 척도로, 총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척도는 총 22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는 1점(없음)부터 5점(매우 자주)으로 총 5점의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데이트폭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정란(1999)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84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 =.82로 나타났다.

### 가정폭력 노출경험

본 연구는 가정폭력 노출경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경험한 아동기 학대 경험과 간접적으로 경험한 부모 간 가정폭력 목격 경험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직접적인 폭력에 해당하는 부모로부터 아동기 학대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 et al.(1998)의 PCCTS(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를 수정하여 사용한 오혜정(2004)의 연구의 척도를 참고하여 최지현(2005)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방임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였으며,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중 한국적 문화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을 제외하였다. 본 척도는 신체적 학대와 심리적 학대로 총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총 1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는 1점(없음)부터 5점(주 1회 이상)으로 총 5점의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최지현(2005)의 연구에서 아동기 학대 경험에 대한 신뢰도는 심리적 학대 Cronbach  $\alpha=.77$ , 신체적 학대 Cronbach  $\alpha=.78$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학대 Cronbach  $\alpha=.84$ , 신체적 학대 Cronbach  $\alpha=.77$ 로 나타났다.

간접적인 폭력에 해당하는 부모 간 폭력 목격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1979)의 CT(The Conflict Tactics Scales)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최지현(200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신체적 폭력과 심리적 폭력으로 총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척도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는 1점(없음)부터 5점(주 1회 이상)으로 총 5점의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최지현(2005)의 연구에서는 부모 간 폭력 목격에 대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87$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84$ 로 나타났다.

### 거부민감성

본 연구에서는 Downey and Feldman(1996)의 RSQ(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와 Innamorati et al.(2014)가 제시한 ARSQ(The Adult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를 토대로 박명진과 양난미(2017)가 개발한 한국 대학생 거부민감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거부민감성의 척도는 예기분노, 예기불안, 과잉반응, 거부로 지각으로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척도는 총 1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으로 총 5점의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타인에 대한 거부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명진, 양난미(2017)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91$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  $\alpha=.94$ 로 나타났다.

### 젠더감수성

본 연구는 젠더감수성 빈도를 측정하기 위해 젠더감수성 척도는 Chen & Starosta(2000)의 문화 간 감수성 이론과 김양희, 정경아(1999)의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의 이론적 구조를 참고하여 이진영(2011)이 개발한 젠더감수성 척도이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성 정체성에 대한 개방성, 자기성찰, 비폭력, 성 역할에 대한 개방성으로 총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척도는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문항의 점수는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으로 총 5점의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이 척도의 점수가 높으면 젠더감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진영(2011)의 연구에 대한 신뢰도는 성 정체성에 대한 개방성 Cronbach  $\alpha=.83$ , 자기성찰 Cronbach  $\alpha=.69$ , 비폭력 Cronbach  $\alpha=.62$ , 성 역

할에 대한 개방성 Cronbach  $\alpha=.74$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90$ 으로 나타났다.

#### 자료분석

최종적으로 연구대상자로 수집된 390명의 자료는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과 Hayes (2017)가 개발한 SPSS PROCESS macro v3.4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통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료의 전반적인 경향성을 확인하고, 연구 변인들이 정상분포 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의 신뢰도 확인을 위해 연구 참가자들의 데이트폭력성, 가정폭력 노출경험, 거부민감성, 젠더감수성에 대하여 Cronbach  $\alpha$ 를 통한 내적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에 대한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과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주요 변인인 가정폭력 노출경험, 데이트폭력성, 거부민감성, 젠더감수성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대학생의 데이트폭력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및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Hayes(2017)의 PROCESS model 5를 이용하였다. 매개효과와 관련한 가설검정은 신뢰구간 (Confidence Interval; CI)을 이용하였으며, 활용한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은 편향조정(bias-corrected; BC) 부트스트랩 신뢰구간이며, 부트스트랩 샘플링은 10,000개로 지정하였다. 결과는 BC의

Lower 값과 Upper 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유의하다고 판단한다(Hayes, 2017). 조절효과와 관련해 통계적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에 대해 평균중심화를 실시했으며, 조절효과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조절변인의 평균  $\pm 1$  표준편차에서의 조건부 효과를 확인하였다.

## 결 과

### 기술 통계 및 상관관계

####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과 각 변인의 하위요인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및 첨도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가정폭력 노출경험의 평균은 1.31, 표준편차는 .38, 최솟값은 1.00, 최댓값은 2.83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노출경험의 하위요인 중 아동기 학대\_심리적 요인과 부모 간 폭력목격\_심리적 요인이 아동기 학대\_신체적 요인과 부모 간 폭력목격\_신체적 요인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아, 대학생들은 가정폭력 노출경험 중 신체적인 폭력보다, 심리적인 폭력에 많이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데이트폭력성의 평균은 1.28, 표준편차는 .25, 최솟값은 1.00, 최댓값은 2.64로 나타났다. 데이트폭력성의 하위요인 중 심리적 데이트폭력성의 평균값이 1.50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의 평균은 2.29, 표준편차는 .88, 최솟값은 1.00, 최댓값은 4.20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 중 거부지각의 평균값

표 1. 주요 변인 및 하위요인의 기술통계

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b>가정폭력 노출경험</b>	1.31	.38	1.00	2.83	1.70	2.44
아동기 학대_심리적	1.75	.85	1.00	5.00	1.43	1.65
아동기 학대_신체적	1.19	.32	1.00	2.89	2.45	6.81
부모 간 폭력목적_심리적	1.76	1.12	1.00	5.00	1.27	.40
부모 간 폭력목적_신체적	1.13	.32	1.00	3.44	3.62	16.26
<b>데이트폭력성</b>	1.28	.25	1.00	2.64	1.95	5.34
심리적 데이트폭력성	1.50	.42	1.00	3.36	1.57	2.96
신체적 데이트폭력성	1.08	.18	1.00	2.57	4.37	25.89
성적 데이트폭력성	1.03	.12	1.00	2.00	5.84	39.41
<b>거부민감성</b>	2.29	.88	1.00	4.20	.09	-1.04
예기분노	2.12	.94	1.00	4.60	.48	-.85
예기불안	2.16	1.01	1.00	4.67	.46	-.93
과잉반응	2.34	1.06	1.00	4.75	.23	-1.10
거부지각	2.61	1.19	1.00	5.00	-.02	-1.33
<b>젠더감수성</b>	3.26	.63	1.48	4.87	.07	-.23
성 정체성에 대한 개방성	3.25	.89	1.00	5.00	-.16	-.56
자기성찰	3.11	.67	1.38	5.00	.04	-.24
비폭력	3.19	.70	1.00	4.71	.05	-.45
성 역할에 대한 개방성	3.47	.78	1.44	5.00	.02	-.54

이 2.6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젠더감수성의 평균은 3.26, 표준편차는 .63, 최솟값은 1.48, 최댓값은 4.87로 나타났다. 젠더감수성의 하위요인 중 성 역할에 대한 개방성의 평균값이 3.4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노출경험의 하위요인인 부모 간 폭력목적\_신체적, 데이트폭력성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데이트폭력성, 성적 데이트폭력성의 3개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의 왜도 및 첨도가 각각 3과 7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정규성 가정

을 충족하지 못한 부모 간 폭력목적\_신체적, 신체적 데이트폭력성, 성적 데이트폭력성의 3개 하위요인은 추후 분석에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하였다.

####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가정폭력 노출경험, 데이트폭력성, 거부민감성, 젠더감수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데이트폭력성( $r=.37$ ,



표 2.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2	3	4
1. 가정폭력 노출경험	1			
2. 데이트폭력성	.37***	1		
3. 거부민감성	.34***	.36***	1	
4. 젠더감수성	.21***	.01	-.02	1

주. \*\*\*  $p < .001$

$p < .001$ ), 거부민감성( $r = .34, p < .001$ ), 젠더감수성( $r = .21, p < .001$ )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데이트폭력성은 거부민감성( $r = .36, p < .001$ )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젠더감수성과는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고, 거부민감성과 젠더감수성 간의 상관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인에 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과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가정폭력 노출경험의 하위요인인 부모 간 폭력목적\_심리적과 데이트폭력성의 하위요인인 성적 데이트폭력성,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인 예기분노와 예기불안의 4개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에 대해 여성이 남성들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 가설검증

#####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데이트폭력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및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데이트폭력성의 관계

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및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PROCESS model 5를 활용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그림 1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데이트폭력성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B = .24, p < .001$ ), 모형의 설명력은 13%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많을수록 데이트폭력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둘째,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거부민감성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 $B = .77, p < .001$ ), 모형의 설명력은 11%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많을수록 거부민감성 수준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셋째, 데이트폭력성을 종속변인으로, 가정폭력 노출경험, 젠더감수성,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젠더감수성의 상호작용항과 거부민감성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거부민감성은 데이트폭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B = .07, p < .001$ ), 가정폭력 노출경험 또한 여전히 데이트폭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20, p < .001$ ). 한편, 젠더감수성은 데이트폭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젠더감수성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 $B = -.09, p < .05$ ). 상호작용항을 투입하기 전 설명량은 20%로

표 3.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및 하위요인의 평균과 차이검증

종속변인	남(N=165)	여(N=225)	t(388)
	M(SD)	M(SD)	
<b>가정폭력 노출경험</b>	1.22( .34)	1.37( .40)	-3.80***
아동기 학대_심리적	1.54( .73)	1.90( .90)	-4.35***
아동기 학대_신체적	1.13( .28)	1.22( .34)	-2.95**
부모 간 폭력목격_심리적	1.11( .31)	1.15( .32)	-1.37
부모 간 폭력목격_신체적 <sup>A</sup>	1.52(1.00)	1.93(1.18)	14,284.00***
<b>데이트폭력성</b>	1.23( .23)	1.32( .25)	-3.93***
심리적 데이트폭력성	1.41( .38)	1.57( .43)	-3.77***
신체적 데이트폭력성 <sup>A</sup>	1.04( .15)	1.10( .19)	15,605.00***
성적 데이트폭력성 <sup>A</sup>	1.03( .13)	1.02( .11)	18,112.00
<b>거부민감성</b>	2.14( .89)	2.40( .86)	-2.90**
예기분노	2.03( .93)	2.20( .95)	-1.75
예기불안	2.06( .97)	2.23(1.03)	-1.61
과잉반응	2.13(1.05)	2.49(1.04)	-3.31***
거부지각	2.40(1.22)	2.77(1.15)	-3.04**
<b>젠더감수성</b>	2.88( .54)	3.54( .53)	-12.10***
성 정체성에 대한 개방성	2.76( .84)	3.60( .74)	-10.53***
자기성찰	2.79( .62)	3.34( .61)	-8.66***
비폭력	2.95( .71)	3.36( .63)	-6.06***
성 역할에 대한 개방성	3.00( .65)	3.82( .68)	-11.89***

주. \*\*  $p < .01$ , \*\*\*  $p < .001$

주2. <sup>A</sup>. 세 변인의 경우 정규성 가정이 충족되지 않아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4.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데이트폭력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및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S.E	$\beta$	t	F	R <sup>2</sup> ( $\Delta R^2$ )
데이트폭력성	가정폭력 노출경험	.24	.03	.37	23.54***	59.93***	.13
거부민감성	가정폭력 노출경험	.77	.11	.34	7.03***	49.37***	.11
	가정폭력 노출경험 <sup>A</sup>	.20	.03	.31	6.12***		
데이트폭력성	거부민감성	.07	.01	.25	5.20***	25.73***	.20
	젠더감수성 <sup>B</sup>	-.01	.02	-.02	-.48		
	A × B	-.09	.04	-.09	-2.42*	25.73***	.21 (.01*)

주. \*  $p < .05$ , \*\*  $p < .01$ ,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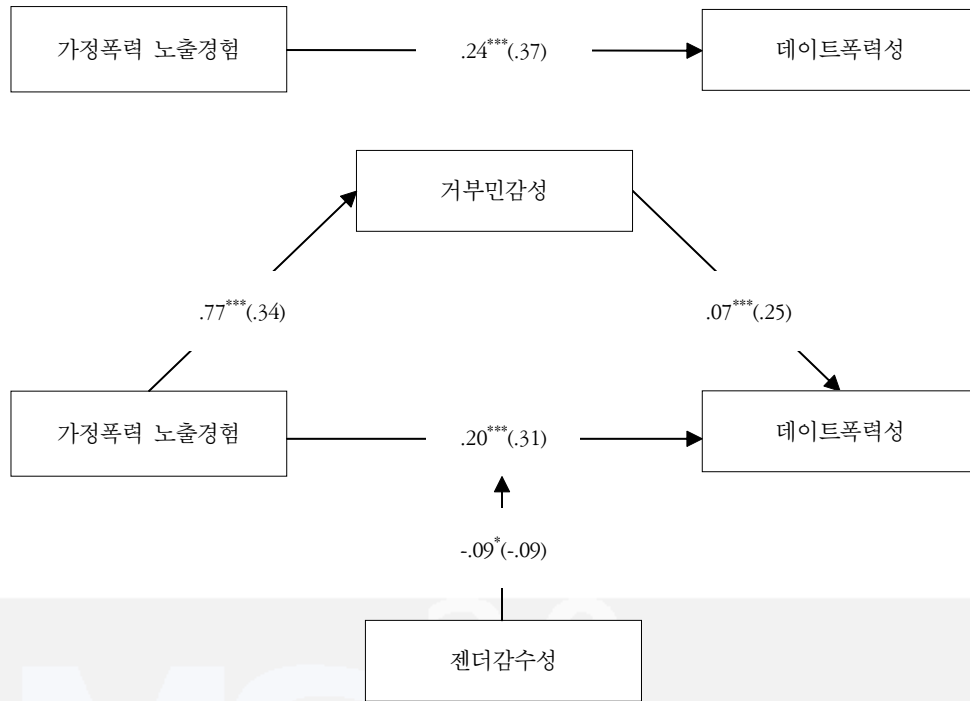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주. 괄호 안은 표준화 회귀계수임.

나타났고, 상호작용을 투입한 후 설명량은 21%로 상호작용항이 추가된 후 1%의 설명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데이트폭력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10000번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거부민감성을

통해 데이트폭력성에 미치는 영향이 bootstrap 95%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B=.06, 95\% CI=.03 \sim .09$ ). 이는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많을수록 거부민감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데이트폭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데이트폭력성을 증가시키는 직접효과 또한 유의하

표 5. 거부민감성의 간접효과 Bootstrapping 분석 결과

효과	B	S.E	95% CI	
			LL	UL
총 효과	.24	.03	.18	.30
직접 효과	.18	.03	.12	.24
간접 효과	.06	.02	.03	.09

였다. 이는 거부민감성의 간접효과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노출경험 자체가 데이트폭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데이트폭력성을 증가시키는 직접효과에 대한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를 상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젠더감수성의 세 수준(M, -1SD, 1SD)에서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데이트폭력성에 미치는 조건부 직접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때, -1SD는 낮은 젠더감수성, +1SD는 높은 젠더감수성으로 정의한다. 젠더감수성 수준에 따른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데이트폭력성에 미치는 조건부 직접효과에 대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과에 대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젠더감수성이 증가할수록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데이트폭력성에 미치는 정적인 직접효과가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젠더감수성의 세 수준 모두에서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데이트폭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젠더감수성이 낮을 때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데이트폭력성에 미치는 정적인 직접효과( $B=.26, p<.001$ )에 비해 젠더감수성이 높을 때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데이트폭력성에 미치는 정적인 직접효과( $B=.14, p<.001$ )가 더 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 6. 젠더감수성 수준에 따른 데이트폭력성에 대한 가정폭력 노출경험의 조건부 직접효과

독립변인	조절변인 (젠더감수성)	B	S.E	t	LL	UL
가정폭력 노출경험	-1SD(-.63)	.26	.04	5.89***	.17	.34
	M	.20	.03	6.13***	.13	.26
	1SD(.63)	.14	.04	3.74***	.07	.21

주. \* $p<.05$ , \*\* $p<.01$ ,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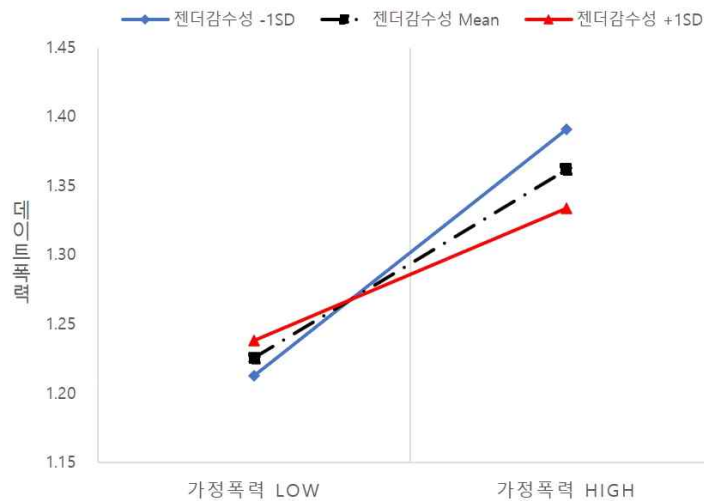


그림 2.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젠더감수성의 상호작용 효과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많을수록 직접적으로 데이트폭력성을 높이지만, 이때 젠더감수성이 높을수록 이러한 관계는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젠더감수성의 세 수준에서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데이트폭력성에 미치는 조건부 효과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데이트폭력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거부민감성의 매개 효과와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여, 상담학적인 측면과 젠더학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데이트폭력성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가정폭력 노출경험의 위험성과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거부민감성과 젠더감수성의 전문적인 개입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인 대학생들의 특성을 보면, 연애경험의 유무에 연애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51명(90%)으로 데이트폭력에 경험과 위협에 노출될 확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생들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325명(83.3%)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경험에 대해서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05명(52.6%)으로, 대학생들은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이를 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연인관계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데이트폭력의 위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대학생들 역시 느끼고 있지만 실제로 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데이트폭력이 데이트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데이트폭력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고(홍영오 외, 2015),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우현진 외, 2017)는 점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범죄의 위협을 줄이기 위해 데이트폭력 예방교육이 더 많고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의 차이검증에 따르면, 남성보다 여성의 데이트폭력성이 유의하게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데이트폭력의 가해 빈도는 남녀가 비슷한 가해율을 보이며 남녀 차이가 나타나지 않거나(김예정, 김득성, 1999; 김유정, 서경현, 2009; 하예지, 서미경, 2014; Kelley et al., 2015),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은 폭력을 행사하는 결과(강희경, 2007; 강희순, 이은숙, 2014; 서경현, 2004; 서경현 외, 2001; 서경현, 이영자, 2001; Archer, 2000; O'Leary & Slep, 2012)와 일치한다. 그러나 여성주의 입장에서는 여성의 데이트폭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은 맥락적인 문제를 간과한 채, 결과에만 의존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Dardis et al., 2014; Stark, 2010). 데이트폭력의 심각한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여성의 데이트폭력성은 자기방어이거나 심리적 위협이나 성적 강요에 대한 신체적 표현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서경현, 이영자, 2001; Levy, 1998). 이를 보아, 단순히 폭력의 빈도수만 보고 여

성이 남성보다 데이트폭력성이 더 높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맥락적인 문제와 폭력의 심각성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데이트폭력의 현상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가정폭력 노출경험, 데이트폭력성, 거부민감성, 젠더감수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주요 변인 간의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인인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종속변인인 데이트폭력성과 서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Bandura(1973)의 모델링을 통해 학습하는 사회학습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데이트폭력성에 정적 상관을 나타낸 결과와 일치한다(강희순, 이은숙, 2014; 권오정, 2019; 오선영, 김영희, 2007). 이를 통해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경험이 많을수록 폭력적인 행동을 학습하고 내면화하여 데이트폭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간의 관계에서 정적 상관을 발견하지 못했다(서경현, 2007; Comins, 1984; Stets & Pirog-Good, 1987; Follette & Alexander, 1992; Riggs & O'Leary, 1996). 선행연구들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두 변인 간의 다른 변인이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후속연구를 통해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간의 다양한 변인에 대해 탐색할 것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독립변인인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매개변인인 거부민감성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거부민감성에 정적 상관을 나타낸 결과와 일치한다(배라영, 2017; 변

은실, 2015; 정하은, 2020). 이를 통해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경험이 많을수록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또, 매개변인인 거부민감성과 종속변인인 데이트폭력성과의 관계에서도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이 데이트폭력성에 정적 상관을 나타낸 결과와 일치한다(김승분 2019; 박진희, 2018; 신지연, 최수미, 2017; 정이랑, 2013; 정지운, 2019). 이를 통해 거부민감성이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넷째,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데이트폭력성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거부민감성을 경유하여 데이트폭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는 가정폭력에 노출되면서, 중요한 타인에 대한 거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여 모호한 자극이나 작은 거절에도 과민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높은 거부민감성은 친밀한 관계인 연인관계에서 더 많은 적대감과 공격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표출하였다고 보고된 연구결과(이경숙, 2019; 정이랑, 2013; Leary et al., 2006)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거부민감성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통해 데이트폭력성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등을 확인하고 상담장면에서 활용하여 거부민감성의 주 감정인 불안과 분노를 조절하고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탐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데이트폭력성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젠더감수성이 높을수록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데이트폭력성에 미치는 정적영향이 약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젠더감수성은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고(이화숙, 2016), 부모 간 폭력 노출경험과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간의 관계에서도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권오정, 2019)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젠더감수성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젠더감수성은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데이트폭력성의 관계에서 데이트폭력성을 약화시킨다는 결과를 보아, 젠더감수성은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중요한 개입 요인임을 기대할 수 있다. 젠더감수성은 사회적인 학습에 의해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으므로, 교육 현장이나 젠더학적인 측면에서 젠더감수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상담장면에서도 내담자의 젠더감수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 부족한 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지역을 서울, 대전, 경북, 대구, 울산으로 한정하였으나, 후속연구를 통해 조사대상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였으나, 데이트폭력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연령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가해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았으나, 데이트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후속연구를 한다면, 데이트폭력의 예방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개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설문지에는 연인관계로 한정하였으나, 최근 데이트 관계가

연인 사이뿐만 아니라, 호감을 가지고 있는 관계와 헤어진 관계 등 넓은 관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인관계의 형태를 포함하는 데 있어 부족함이 있다. 최근에는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양성애자 등 다양한 연인관계 형태를 가지고 있다. 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데이트폭력의 위험에 대해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에 따른 특징을 파악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가정폭력은 데이트폭력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어 온 변인이지만, 선행연구에 따라 일관적인 결과가 도출되고 있지 않다. 후속연구를 통해 가정폭력의 정도, 유형 등을 고려하여,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 간의 다양한 변인을 탐색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젠더감수성에 대해 연구하였지만, 현재 젠더감수성은 연구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유사한 변인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후속연구를 통해 젠더감수성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젠더와 성인지에 대한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강희경 (2007). 대학생의 가족 폭력에 대한 인식과 데이트 폭력. 청소년학연구, 14, 21-41.
- 강희순, 이은숙 (2014).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 예측 요인. 정신간호학회지, 23(4), 288-298.
- 경찰청 (2020). 데이트폭력 신고 및 유형별

- 현황.
- 경찰청 (2020). 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운영결과.
- 권오정 (2019). 부모 간 폭력 노출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 위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 박옥임, 정혜정 (1999). 가부장적 관점에서 가정폭력: 아내학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 213-239.
- 김도연, 이기은, 이종현 (2017). 데이트폭력 피해 및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데이트폭력 연구소.
- 김득성, 김예정 (1993). 지속적인 이성교제에서의 갈등표출행동 -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31(2), 127-139.
- 김승분 (2019).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데이트폭력성 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 분석.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 정경아 (1999).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 김영옥, 허나운, 조영주, 김미선 (2005).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원 사업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 김예정, 김득성 (1999).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I). 대한가정학회지, 37, 187-211.
- 김용미 (1996). 미혼 대학생의 혼전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의 경험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87 - 197.
- 김용미, 김현옥 (2001).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이성교제와 교제폭력의 실태에 대한 연구. 교과교육연구, 2(1), 263 - 319.
- 김유정, 서경현 (2009). 폭력적 데이트 관계에서의 충동성과 분노 및 분노조절. 한국심리학회지, 14(2), 383 - 402.
- 김재엽, 이효정, 송아영 (2007). 가정폭력 경험이 남자 청소년의 성폭력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7, 27-52.
- 김정란 (1999).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과 대처 행동.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명진, 양난미 (2017). 대학생 거부민감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29(1), 103-127.
- 박진희 (2018). 성인 애착과 데이트 폭력의 관계: 내현적 자기애와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라영 (2017). 정서적 학대, 친구관계 문제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분노반추의 매개효과.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변은실 (2015). 정서적 학대가 아동의 외현적 및 관계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동덕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경현 (2004).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 대한 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9, 147-162.
- 서경현 (2007).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가정폭력이 대학생의 연인관계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2(1), 153-170.
- 서경현 (2009). 이성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14, 699-727.
-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대학생들의 데이트폭력과 예측변인. 여성건강, 2, 75-98.
- 서경현, 김유정, 정구철, 양승애, 김보연 (2010).



- 데이트폭력에 대한 거부장 비대칭 패러다임과 성 포괄적 모델의 타당성 제고. 한국심리학회지, 15(4), 781-799.
- 서경현, 이영자 (2001). 고등학생들의 연애폭력에 대한 예측변인. 한국심리학회지, 7(2), 91-106.
- 손연우 (2018).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파트너 통제가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지연, 최수미 (2017). 거부민감성, 비대칭 패러다임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22(4), 533-549.
- 안귀여루 (2006).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심리 사회적 위험 요인들에 대한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11(4), 709-726.
- 안상수, 김이선, 박군석, 이상화, 김정인 (2009). 성인지력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양승애, 서경현 (2015). 부모의 거부적 양육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8), 407-427.
- 오선영, 김영희 (2007). 부모에 의한 폭력 경험, 데이트 관계만족도, 자아존중감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10, 1-27.
- 오혜정 (2004).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부폭력노출경험이 성장 후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현진, 장숙희, 권호인 (2017).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극복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22(3), 315-335.
- 유고은 (2011). 지각된 모의 양육행동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관계: 애착 안정성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선영 (2000). 여대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 폭력 피해간의 매개 요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재원 (2019). 대학생의 젠더감수성과 데이트폭력 가해동기의 관계에서 스포츠 참여의 조절효과.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숙 (2019). 외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 거부민감성과 책임귀인의 매개효과.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진영 (2011). 젠더감수성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화숙 (2016). 대학생의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 신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희숙 (2002). 부모의 폭력 및 지지행동이 이성교제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50, 131-155.
- 장희숙, 조현각 (2001). 대학생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와 위험요인들. 한국가족복지학, 8, 179 - 204.
- 정오영 (2021).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내현적 자기애, 관계중독 성향의 이중매개효과.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이랑 (2013). 거부민감성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공감과 책임귀인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지윤 (2019).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데이트폭력성 관계에서 분노사고의 매개효과.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하은 (2020). 아동기 학대경험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관계중독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해숙, 이소연, 정경아, 송인자, 김금미 (2004). 공무원의 성 인지력 향상 훈련 실태 및 발전방안. 여성가족부.
- 조은수 (2015). 거부민감성과 공격성의 관계에서 분노사과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지현 (2005).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혜자 (2017). 거부민감성과 데이트폭력간의 관계: 경계선적 성격특성 매개효과.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8). 201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 하예지, 서미경 (2014). 데이트 폭력 인식과 폭력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79-103.
- 한국여성의전화 (2018).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 홍영오 (2017). 성인의 데이트폭력 가해요인. *형사정책연구*, 28(2), 321-353.
- Archer, J. (200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partner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6(5), 651-680.
- Ayduk, O., Gyurak, A., & Luerssen, A. (2008).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rejection - aggression link in the hot sauce paradigm: The case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3), 775-782.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prentice-hall.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 Berkowitz, L. (1965). The Concept of Aggressive Drive: Some Additional Considerations. In L. Berkowitz (ed), *Advance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301-329), 2, New York: Academic.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anxiety an danger*. New York: Books.
- Cate, R. M., Henton, J. M., Koval, J., Christopher, F. S., & Lloyd, S. (1982). Premarital abuse: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3(1), 79-90.
- Chen, G. M., & Starosta, W. J. (2000).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intercultural sensitivity scale.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
- Comins, C. A. (1984). Courtship violence: A recent study and its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Paper delivered at the Second National Conference for Family Violence Researchers*, Durham, NH, 7-10.
- Dardis, C. M., Dixon, K. J., Edwards, K. M., & Turchik, J. A. (2014). An examination of factors related to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mong young men & women & associated theoretical explanations: A review of the literature. *Trauma Violence Abuse*, 16(2), 136-152.
- Downey, G., Feldman, S., & Ayduk, O.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7(1), 45-61.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 Erozkan, A. (2009). Rejection sensitivity levels with respect to attachment styles, gender, and parenting styles: A study with Turkish student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37(1), 1-14.
- Feeney, J. A., & Noller, P. (1990). Attachment style as a predictor of adul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281.
-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1), 231-247.
- Feshbach, S. (1970). Aggression. In P. H. Mussen (ed.), *Carmichael's Manual of Child Psychology*, 2, 159-260. New York: Wiley.
- Follette, V., & Alexander, P. C. (1992). Dating violence: Current and historic correlates. *Behavioral Assessment*, 14, 39-52.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Innamorati, M., Balsamo, M., Fairfield, B., Fabbriatore, M., Tamburello, A., & Saggino, A. (2014).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adult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A comparison of three factor models. *Depression Research and Treatment*, 2014.
- Johnson, M. P., & Leone, J. M. (2005). The differential effects of intimate and situational couple violence: Findings from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Journal of Family Issues*, 26(3), 322-349.
- Kelley, E. L., Edwards, K. M., Dardis, C. M., & Gidycz, C. A. (2015). Motives for physical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A gendered analysis. *Psychology of Violence*, 5(1), 56-65.
- Leary, M. R., Twenge, J. M., & Quinlivan, E. (2006). Interpersonal rejection as a determinant of anger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2), 111-132.
- Levy, B. (1998). *Dating Violence: Young women in danger*. Seal press.
- Lichter, E. L., & McCloskey L. A. (2004). The effects of childhood exposure to marital violence on adolescent gender-role beliefs and dating violen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8(4), 344-357.
- Lloyd, S. A., Koval, J. E., & Cate, R. M. (1989). Conflict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In An earlier version of this chapter was presented at the 1988 Conference of the National Council on Family Relations*. Praeger Publishers.
- Makepeace, J. M.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 30, 97-120.
- Marcus, R. F., & Swett, B. (2003). Violence in close relationships: The role of emotion.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8(3), 313-327.
- Miers, M. (2002). Developing an Understanding of Gender Sensitive Care: Exploring Concepts and Knowledg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0(1), 69-77.
- O'Leary, K. D., & Slep, A. M. S. (2012). Prevention of partner violence by focusing on behaviors of both young males and females.

- Prevention Science*, 13, 329-339.
- Riggs, D. S., & O'Leary, K. D. (1989). A theoretic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 Riggs, D. S., & O'Leary, K. D. (1996).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dating partners: An examination of a caus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 519-540.
- Shorey, R. C., Cornelius, T. L., & Bell, K. M. (2008). A critical review of theoretical frameworks for dating violence: Comparing the dating and marital field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3(3), 185-194.
- Stark, E. (2010). Do violent acts equal abuse? Resolving the gender parity/asymmetry dilemma. *Sex Roles*, 62, 201-211.
- Stets, J. E., & Pirog-Good, M. A. (1987).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530-548.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75-88.
- Straus, M. A. (1990).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New York: Routledge.
- Straus, M. A. (2004).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Violence against women*, 10(7), 790-811.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traus, M. A., Hamby, S. L., Finkelhor, D., Moore, D. W., & Runyan, D. (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22(4), 249-270.
- Sugarman, D. B., & Hotaling, G. T. (1989). Violent Men In Intimate Relationships: An Analysis of Risk Marker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9(12), 1034-1048.
- Twenge, J. M., Baumeister, R. F., Tice, D. M., & Stucke, T. S. (2001). If you can't join them, beat them: effects of social exclusi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1058.

1차원고접수 : 2022. 02. 04.

심사통과접수 : 2022. 03. 15.

최종원고접수 : 2022. 04. 01.

## The Role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Gender Sensi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nd Date Violence: Focused on College Students

SooJung Lee

EunYoung Kim

Department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role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gender sensi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nd date violence, in an attempt to prevent and intervene in the recent surge in date violence. To this en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400 college students at nine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Daejeon, Gyeongbuk, Daegu, and Ulsan; 390 data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The SPSS Statistics 22.0 and PROCESS macro v3.4 were utilized for analysis. First, the results showed that rejection sensitivity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nd date violence. The more exposed to domestic violence, the higher the rejection sensitivity and the higher the date violence. Also, it was foun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sensitivity was significa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nd date violence. The more domestic violence exposure experiences, the higher the date violence, but the higher the gender sensitivity, the weaker the positive effect of the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on date violence. These findings that identified the factors affecting date violence can serve as basic data to prevent date violence, while suggesting effective interventions through rejection sensitivity and gender sensitivity.

*Key words* :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date violence, rejection sensitivity, gender sensitivity